



잊을 수 없는 별이
특별한 먹거리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톳과 봄의 전령인
방풍나물 등 마라도의 자연에서 나는 재료들이
마을 주민들의 손을 거쳐
특별한 먹거리로 탄생하였다.



마라도 앞바다의 거친 조류
속에서 자라 탱글탱글 식감이
뛰어난 마라도 톳으로 만든
톳 어묵 고로케.
바삭한 고로케 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톳 향은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별미!
포장이 간편해서 선물용으로도 좋다.



호흡기 질환이나 불면증에 좋고
해독 작용까지 있는 방풍 나물과
쉽게 무르지 않는 톳으로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장아찌를 만들었는데,
더 건강한 맛으로 새롭게 선을 보인다.

섬터에
이색힐링체험
마라도 섬투어

마라도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라도 섬투어는,
여객선 선사 두 곳과 연계해 진행하는
섬마을 체험여행 상품.



주민해설사와 함께하는 '섬마을 투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추억의 도시락' 체험,
나만의 느린 마라도 자유여행으로 구성된 3시간 동안 마라도를 천천히 느낄 수 있다.



문의 : 마라도 협동조합 010.6431.1970

마라도 모든 정보를 담은 곳
마라도 관광객 숏터

마라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게 생긴다면
쉬어갈겸 이곳에 들러보자!



천연보호구역 마라도 이야기에서부터 바람, 야생화, 조류 등 마라도의 생태자연,
마라도 3대 해산물(미역, 톳, 성게), 그리고 마라도의 사계절과 별 이야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사진과 설명으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술선
수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버리지 마라도' 캠페인과 마라도 투어 코스, 포토존 등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기는
마라도 여행

* 1일전 사전예약 필수!

운진항 출발

ASUM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 운진항
www.wonderfulis.co.kr

TEL 064.794.5490
www.wonderfulis.co.kr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하모리 646-20)

송악산 출발

마라도가는여객선
마라도 가는 여객선

TEL 064.794.6661
www.maradotour.com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관광로 424
(상모리 133-2)

승선료 성인(왕복) 18,000원/ 도민 15,000원 소요시간 편도 30분



참고

- 승선표 구입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해상 상황에 따른 운항 변경 등 출발 전 배편 확인
- 선사가 두 곳 이므로 사전에 출발 선사 확인

비상 연락처

마리 마을회
064.792.4663

마라도 치안센터
064.792.8501

마라도 보건진료소
064.760.6385

마라도

국토 최남단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최남단 마라도

배를 타고 30분이면 도착하는 마라도.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는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해양 생물,
해양 생태계의 보호 가치를 높게
평가 받아 2000년에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423호로 지정되었으며,
역사·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명소들도 많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1년에 단 15일만 출입이
허락되었던 금단의 섬 마라도가, 그 벗장을
시원하게 걸어내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아름다운 마라도를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주민들의 진심까지
더해져 풍성한 마라도 여행을 떠나 보자.



매달 1일 쓰레기 없는 섬 만들기
마라도 지킴이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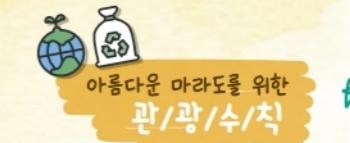


천연보호구역 마라도를 지키기 위해
주민들은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태우지도 않는다. 그러나 관광객이 늘고
많은 쓰레기로 매달 1일 관광객과 함께 하는
마라도 지킴이 활동이 주민주도로 열리고 있다.

송악산 출발 오전 10시, 운진항 출발

오전 10시 30분 배를 타고 마라도로 들어 가면,
주민들이 나눠주는 쓰레기 봉투를 받고 마라도 곳곳의 쓰레기를 담아오면
선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마라도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같다면 같이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기상 악화로 인하여 캠페인 활동 변경 및 취소 가능성 있음



마라도 관광 중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 손으로 직접 다시 담아 가기

※ 마라도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취사나 캠핑이 전지역 금지되어 있음

Jeju 서귀포시

제주관광공사
JEJU TOURISM ORGANIZATION

마라도
Marado
Marado Tourism Organization



마라도의 전설을 기억하며~ '할망당'
할망당은 오랜 옛날 모슬포 해녀들이 마라도에 제물로 두고 떠난 애기업개의 훈을 달래려고 세운 곳이다. 이곳에서 차분하게 소원을 빌어 보면 어떨까.



산과 바다의 파노라마, '벤치 언덕'
살레덕 선착장에서 마라도 등대로 향하는 얇은 언덕 벤치에 앉아, 푸른 바다 위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제주 본섬과 송악산, 산방산, 한라산을 감상해 보자.



마라도의 가장 높은 곳, '마라도 등대'
벤치 언덕에서 걸어 올라가면 '마라도 등대'에 도착한다. 100년 넘게 이 섬을 밝혀주고 있는 등대는, 마라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서바탕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멋진 포토존!



인생 사진을 남겨 보자, '마라도 성당'
전복 껍데기 모양의 지붕이 인상적인 '마라도 성당'. 성당지기 부부의 작은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겨도 좋고, 계절에 따라 달리 피어나는 꽃들과 늘 푸른 바다를 함께 담아도 좋겠다.



마라도의 상징, '최남단비'
이곳에서 찍은 인증샷이 마라도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남단비'의 웅장함을 사진에 담아 보자.



짜장면집

마라도해녀촌자장	010-6437-1970
환상의짜장	010-8864-3259
심봉사눈뜬짜장	010-2695-5500
짜장면시기신분	010-9839-0222
원조마라도짜장	010-2691-8511
마라도별장짜장	010-3696-5724
바다와짜장	010-3560-6177
서바당짜장	010-3696-3889
철기방을듬해녀	010-3575-6865
팔도짜장	010-4613-1435

횟집/수산

해녀3대할망네	010-8971-4123
이모네횟집	010-3690-0738
최남단횟집	010-4404-5507

민박/게스트하우스

환상의민박	010-3693-8857
소라민박	010-7307-7972
마라도별장민박	010-3696-5724
마라도펜션	010-3560-6177
마라도게스트하우스	010-8763-1189
마라민박	010-8971-4123
이모네민박	010-3690-0738
최남단민박	010-4404-5507
팔도민박	010-4613-1435

